

자료명 1'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엠바고 | 5월 4일(木)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5/3(水) 14:00부터)

문의처 | 탄소중립실 김녹영 실장(010-3001-9667), 이시형 과장(010-9920-0745)

# 탄소중립 혁신 솔루션 찾아라... 대한상의 100대 정책과제 제안

- 대한상의, 3일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국내·외 관계자 400여명 참석
- 이회성 IPCC 의장, 루쓰 싸피로 CAPS 대표, 헬렌 클락슨 Climate Group 대표 등 글로벌 기후리더 참여
- 대한상의, 탄소중립 위한 100대 정책과제 담은 전략보고서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일 'Innovation Solutions for Net Zero'를 주제로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과 4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회성 IPCC 의장, 루쓰 싸피로(Ruth Shapiro)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대표,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Climate Group 대표 등 글로벌 기후리더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Microsoft,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BASF 등 국내외 선도기업, 주한EU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아르헨티나대사와 GGGI 등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공조, 특히 아시아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아시아자선 사회센터도 함께 자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 〈개회식 후 배포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 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 새로운 투자를 통해 우리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 고,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쓰 싸피로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공동설립자는 축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도움으로 CAPS가 한국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해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활동 현황과 교훈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아시아 지역의 탄소감축 행동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 탄소중립 위한 100대 정책과제 담은 전략보고서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

대한상의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한국경 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고서 내용은 별첩 참고〉

보고서 전달식에는 최태원 회장과 함께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초등학생 2명이 함께해 탄소중립은 현재보다도 인류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미래세대 대표로 참여한 초등학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재준 어린이(서울내발산초등학교)와 부산에 거주하는 조윤아 어린이(부산명지초등학교)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탄소중립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5월 25일부터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와 나아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까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항로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준비됐다.

대한상의 100대 과제는 지난해 4차례 개최한 국내 세미나를 비롯해 탄소중립 전문가 100여명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해법을 담았다.

보고서는 '시장원리', '과학기술 기반', '인센티브 제도 정비'라는 3대 원칙하에 전력시장, 산업 경쟁력, R&D, 배출권거래제 등 9개 분야의 핵심과제들을 선발하여 정리했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제 제안서이지만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 지침서로도 손색없다는 평이다.

## 이회성 IPCC 의장. 혁신기술 개발과 확산이 탄소중립 최대 과제... 한국의 기술력 보여줄 때

기조강연자로 참여한 IPCC 이회성 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지만, 이삼십년 내 1.5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이라며 "어느 때보다 선제적 적응대책과 강력한 감축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기술력, 인적자원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 헬렌 클락슨 Climate Group 대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목표 수립과 이행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투자를 확대해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선도기업들이 주도하는 전기차 전환(EV100), 저탄소 철강으로 전환 (SteelZero) 등 다양한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 MS,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BASF 등 글로벌 선도기업 모여 기업의 역할과 해법 논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Microsoft(미국), 삼성전자(한국), SK(한국), 현대차(한국), LG(한국), 포스코(한국), BASF(독일), ANJ Group(인도), Miniwiz(대만), Hang Lung Properties(홍콩), 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필리핀), Ayala Corporation(필리핀) 등 각국의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신용녀 Microsoft 최고기술임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중립을 넘어 카본 네거티브 (Carbon Negative)\*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해 2022년에 140만 톤의 탄소를 제거했고, 2050년까지 수십 억 톤의 탄소를 제거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은 책임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여 고객이 데이터에 입각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탄소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아져 마이너스 배출 달성

나석권 SK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은 기업의 탄소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인 EPC(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EPC의 개념은 기존 탄소 감축 프로그램과 달리 잠재적 감축 기여자에게 거래 가능한 자산(Credit)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EPC 도입을 통해 투자자와 솔루션 개발자가 빠르게 성과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성 LG 전무는 "지난 2월 모든 계열사의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수단을 검토해 그룹 차원의 통합 넷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IPCC에서 제공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준용하고 고객과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지속가능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준 한국BASF 대표는 "바스프는 지난해 1월 넷제로 엑셀러레이터(Net Zero Accelerator) 조직을 신설하고 바스프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활동을 통합해 가속화하는 작업을 착수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용, 재생 가능한 대체원료,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결집해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세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의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과 글로벌 탄소중립'를 주제로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EU, 호주, 아르헨티나 등 주한 외교 대사와 GGGI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해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전략과 도전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확산'을 주제로 제밀라 마흐무드 말레이시아 썬웨이대학교 지구보건센터 이사,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등이 참여해 비즈니스 차원의 기회 요인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기술·제품·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성은 YOLK 대표, 이철 로우카본 대표이사, 김진성 투파더 대표 등 탄소 중립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도 참여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의 활약 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100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공유한 만큼 새로운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동 협력해 국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1]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주요 내용

비전

####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

• 탄소중립 이행투자 비용(Cost)보다 편익(Benefit)이 높아지는 시점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 정비



#### 1. 전력 시장·제도

- 전력계통 혁신
- 전력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

- 가격입찰제 도입
- 전력요금 다양화
- 무탄소 전력시장 조성 등

#### 2. 에너지 시스템

- 무탄소 에너지원 종류 확대
- 산업단지 열병합 전환사업 지원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지원 확대

- 무탄소 에너지원 지원 강화
- 부산에너지 확대 위한 법 제도 정비
- 에너지효율화 및 사업기획 확대 등

#### 3. 산업 경쟁력

- 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
- RE100 등 무역장벽 대응 지원 확대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그린수소 공급 확대
-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강화
- 혁신기술 헌장 적용 지원 확대 등

#### 4. 연구 개발 투자

- 기술개발 세제지원 확대
- 국책연구과제 민간부담 비율 축소
- R&D 지원 확대 및 예비타당성평가 간소화
- 연구개발 사업의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확대 등

#### 5. 배출권거래제

- 할당 배출권 이월제한 및 상쇄배출권 빈티지 적용 재검토
-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확대 및 해외 감축사업 지원 확대
- 배출권 할당방식 및 시장안정화 제도 선진화
- 연료 대체 폐기물 활용 인센티브 확대 등

#### 6. 비산업(건물·수송·공공) 분야

-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확대
-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지원 강화
- 녹색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건물의 노후 설비 교체 지원 확대 등

#### 7. 순환경제

- 기계적 재활용 인센티브 체계 제정비
-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재활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인증 확대
- 폐플라스틱 재활용 수요처 활대 등

#### 8. 금융·세제 및 자발적 탄소시장

- 녹색금융시장 활성화
- ·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감축성과 평가 강화
-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 탄소 크레디트 활용 가이드 재정비 및 자발적 감축행동 촉진 등

#### 9.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 주민 참여형 탄소감축 사업 활성화
- 공정전환 펀드 조성 및 보상체계 마련
- 탄소중립 수용성 및 직무 전환 위한 교육 강화
-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 확대 등

# [별첨 2] 세미나 프로그램(국·영문)



